

만남

2020년 12월
통권 191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잉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4
교리	신앙 산책-----	7
나눔	-----	10
지혜로운 삶	-----	12
영적 상담	-----	14
기도하는 삶	-----	16
알림	-----	17
축일을 축하합니다	-----	18
전례	-----	19
공동체 소식,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2월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기도 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는 인격적 관계가 하느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더 굳건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잉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대림시기와 성탄시기가 겹쳐 있는 12월은 신앙인의 시각에서는 특별한 시기이지만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쁘고 즐겁기보다는 염려와 걱정으로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그 감동과 여운은 늘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성모님에게 잉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생각해봅시다. 천사는 성모님에게 나타나 성모님께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게 되리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은 너무나 두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성모님의 영혼이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인데 그 아픔은 바로 장차 당신 안에 잉태되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고통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성모님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받게 될 고통을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하느님이 계약조건을 속이고 허락을 받아내려 하신 분이 되어버립니다. 성모님은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의 수난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고, 그런 고통까지도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구원이 세상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계약을 전하는 천사의 인사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은총이 가득한 분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먼저 기뻐하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려고 할 때 먼저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쁘고 행복할 때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쁘면 나를 보고 웃는 사람에게까지도 화가 나지만 기분이 좋으면 나를 보고 짜증내는 사람까지도 받아줄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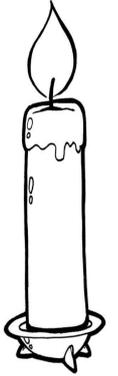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가진 것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예수님과 성모님은 당신의 처지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께 찬미를 드리는 분들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매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찬미의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은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은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이 세상에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한 만큼 하느님께서서는 나를 통해 새로운 구원을 이 세상에 내려 보내려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한 1,6-8.19-28)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6장 “하느님 약속하신 분”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당신의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 언제나 저희들을 초대하시는 주님, 당신께 저희의 사랑을 드리나이다.

진행자 한 분이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1 6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7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8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19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20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21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시오?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2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오?”
23 요한이 말하였다.

- 1 23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24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25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오?”
 26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론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27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28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 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
 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신앙생활에서 ‘깨어 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결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은 빛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의 자세는 사명을 시작할 때
 나 마칠 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는다면 무엇보다
 ‘한결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명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
 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다.”(사도 13,25)라고 강조합니다.

그가 정화되고 진정한 사람이라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기에 그를 온 마음으로 존경하고 섬기는 추종자들을 옆에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백성에게 권고합니다.

아울러 세례자 요한은 ‘목소리’입니다. 요한은 유대인이 보낸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한 1,23)라고 밝힙니다. 요한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1절)을 전달하는 ‘목소리’이기에 특별히 자신만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없으면 메시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사라져도 메시지는 남습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진정하고 유일한 계시자가 나중에 말씀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목소리’입니다. 뒤에 오실 더 강한 분의 완전하고 결정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세례자 요한은 기쁨에 차서 외치며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3,29-30)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6장 “하느님 약속하신 분” 2절과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4. 신경해설 - 하느님의 외아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 대해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해 ...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 1,1)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요한 14,9),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한 10,30),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요한 17,10)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이 하느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당신 전체를 내어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완전히 꼭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와 같으신 분,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분이라고 해서 ‘아들’이라 부릅니다.

한 분 하느님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위가 계신다고 하는 이 도리를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다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할 진리를 하느님께서 굳이 가르쳐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되면 이 삼위일체의 완전한 일치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드님이신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한 몸이 되면 우리도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요한 20,17)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사람이 머리로는 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목숨을 베풀기 위해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의 핵심이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입니다. 당신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인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께서는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로마 5,7)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아드님을 희생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찬송에서는 이렇게 노래하며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종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사랑!”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외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시어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즉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땅위에 평화를 가져다주십니다.

5. 신경해설 -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하여 부를 때 쓰는 호칭 가운데 가장 자주 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신경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 단어는 신앙 고백의 표현들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또 중심이 되는 말마디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서는 구세주이시고, 저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주님의 본 이름입니다. 천사가 요셉 성인에게 일러 준 이 이름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구원하시는 하느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마태 1,21) 하고 말했습니다. 이 이름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주님께 드리는 존칭이며, 그리스말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같은 뜻을 지닌 히브리말이 ‘메시아’입니다. 본래의 말뜻은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늘의 명을 받아 도탄에 빠진 세상을 건져낼 위대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왕에게, 제사장에게, 또 예언자에게 기름을 발라 그 사람의 직책을 표시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임금이시고 대사제이시며 스승으로서 세상을 하느님과 다시 화해시키시고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며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신하가 임금을 부를 때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도 ‘주님’이었습니다. 주인님이라는 말인데, 내 목숨을 마음대로 할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시므로 세상의 이런저런 주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하인에 불과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게는 그 권력 때문에 복종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큰 사랑에 감복한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마치 우리가 주인이고 예수님께서서 우리 하인이신 것처럼 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께서서는 사랑의 흔적을 남겨놓으십니다.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주님,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주님,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십니다.

6. 신경해설 -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실 때,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아지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느님이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聖母)님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저지른 죄는 사람이 갚아야 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느님을 배반한 죄값을 도저히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몸소 사람이 되시어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를 대신 갚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아드님께서 우리와 꼭 같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시어 여느 사람처럼 인생의 우여곡절을 탄생에서 죽음까지 다 겪으시며 인류의 죄를 몽땅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보여줍니다.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끊어진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이어주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명령을 거역한 탓에 본래의 순진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부끄러워하고 허물을 떠넘기는 사이가 되어, 자녀를 낳는 일에 정욕이 끼어들고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창세기 3장 참조). 우리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서는 죄에 물드실 수가 없으므로, 남자의 정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또한 성모님께서서는 예수님을 낳으시기 전이나 그 후에도 평생 동정이시며, 예수님의 구원 공로를 미리 입어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달리 “원죄 없는 잉태”라고 부르며 공경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머리가신 예수님의 몸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되시며,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범이 되시는 어머니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태중에 모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십니다. 주님의 수난과 영광을 함께 하신 성모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며 부활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모님과 더불어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신 그분과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 믿음의 동산(최영숙 데레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만나 신앙으로 지켜온 믿음의 동산
손에 손을 마주잡고 발에 발을 맞춰가며 형제자매 부르면서
가슴으로 평화인사하고 친교로서 사랑 나누면서 맺은 인연
주님 대전에 찬미노래 함께 부르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같이 울고 아플 때 위로해주고
외로운 이국에서 서러운 이방인으로 서로 향수를 달래가며
말씀과 성체로 한주님을 모시고 산지가 벌써 50년이 되어
믿음의 동산에 꽃봉오리 인생을 심어놓은 지도 반세기이다.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어 사랑공동체인 부부가 되었고
하느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가장 작은 교회를 이루어
생명의 보금자리라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출산하게 되면서
핏줄기인 새끼사랑을 처음 느꼈고 창조주께 감사드렸으며
사랑의 선물로 가족이 된 아기를 껴안고 넘치는 기쁨으로
얼마나 예쁘고 신기한지 믿음 안에 만난 예수님 탄생이었지!

믿음의 동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 미사봉헌과 사랑의 친교와 기도생활을 해왔고
하느님의 자녀로 교형자매가 되어 복음적 삶을 봉헌하면서
신앙으로 믿음의 동산을 오르내리다 벌써 늙은이가 되었고
하나씩 흠으로 돌아가고 있는 늙은이의 자녀들은 자라나서
이곳이 모국인 것처럼 독일인이 다 되어서 인생을 함께 하며
이방인의 서러움도 느끼지 못한 채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서로 도와가며 건강과 행복을 빌어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새끼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미 맘은
항상 주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늘 기도 안에서 살아간다.



하느님 모신 믿음의 동산에 자비의 꽃이 피어 축복 주시고
예수님 모신 믿음의 동산에 사랑의 꽃이 피어 생명 주시며
성모님 모신 믿음의 동산에 평화의 꽃이 피어 은총 주시네.

◆ 신앙의 재발견(조학균 베드로 신부님)

신학은 이성과 지성을 이용해 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신앙은 신을 마음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재발견이란 무엇일까요?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하느님을 재발견하고,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것의 의미를 다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존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느님 현존의 느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작곡한 명곡을 분석한다 해서 음악가의 천재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창조물을 분석한다 해도 하느님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음악가의 천재성은 음악을 들음으로써 알 수 있고, 하느님 존재는 창조물 사이에서 느끼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을 알기 위해 분석하려고 합니다. 하느님을 분석하게 되면 그것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지, 신앙을 굳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을 믿고 그분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읽고 믿고 실천하는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쁘게 삽니다. 연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익명의 독지가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도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즉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생활을 하면 지금의 생활이 힘들어도 기쁘게 받아들여 적응하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거부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하느님과 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청하는 것을 꾸밈없이 말하고, 하느님 응답을 아무 생각 없이 들어야 합니다. 기타, 첼로 등과 같이 속이 비어 있는 악기들이 울림통을 거쳐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다른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느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나를 비우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삶에서 표현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느님 말씀이 내면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삶이 바빠집니다. 하느님과 진정한 대화를 하면서 살다 보면 인식과 가치관이 바뀝니다. 신앙의 재발견은 생명 없이 피어 있기만 한 조화 같은 신앙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꽃으로 살다 죽겠습니다.” 하고 하느님께 약속한 노사제의 말처럼 꽃이 피고 시들고 지는 일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신앙을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어디 계십니까?(심홍보 베드로 신부님)

아버지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불편스러움을 토로하셨는데, 한학자였던 큰 고모부가 “남들은 자기 하나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평생을 남을 위해 살고 싶다는데 왜 막느냐?”고 역성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님의 반대가 수그러드셨습니다. 제게는 고모부가 그 순간 동방박사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는데 축원해 주거나 지원해 주거나 역성을 들어주신 분이 계셨는지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점을 보고서는 이스라엘 왕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왔습니다. 별로 점을 치고 이스라엘 왕의 탄생을 알아차렸다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라비아나 페르시아 사람들인가 봅니다. 발타살, 멜키올, 카스팔로 전해지는 이분들은 점성술사로 보입니다. 매일 다른 많은 별들을 바라볼 터인데 그 많은 별들 중에서 인류의 빛으로 새로 나실 이스라엘 왕을 발견하니 남다른 분들입니다. 경제, 문화, 역사 등의 그 많은 새로운 비전 중에서 인류 구원의 빛을 발하는 별을 바라보고, 또 그 별을 따라 경배하러 먼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으니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마태 2,2) 라고 말하며, 그분이 태어난 곳의 위치를 자세히 묻자 이스라엘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점치는 이들의 호기심과 권력자들의 경계심 등이 뒤섞여 긴장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 소식이 왕궁에까지 전해져 헤로데 왕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유다 학자들에게 그에 관한 성경지식을 묻게 됩니다. 유다의 성경학자들은, “주님께서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2사무 5,2)와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미카 5,1) 라는 구절 등을 근거로 삼아 그 내용을 종합하여, 이스라엘 왕의 탄생지를 ‘베들레헴’이라고 알립니다.

이스라엘 학자들도 알았을 텐데, 새로 나신 이스라엘 왕에게 왜 경배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언제 태어나실지 그 ‘때’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설화 같은

이야기여서 아무도 현실에 일어날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마태 2,8) 당혹스럽고 음흉한 음모를 염두에 두기 시작하는 헤로데 왕의 모습과 베들레헴을 향해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길을 재촉하는 동방박사들을 봅니다.

며칠 밤낮에 걸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접하는 순간이 행복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11절)

갑자기 들이닥친 동방박사들을 맞이하며 어머니 마리아는 무척 놀랐으리라 싶습니다. 지난 번 목동들에 이어 예수 아기를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들의 비범하고 특별함에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으셨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왕에게 바쳐지는 선물이라는 의미의 ‘황금’과 하늘을 향해 오르는 기도의 메아리처럼 피어오를 ‘유향’, 그리고 안타깝고 슬프게도 예수님의 희생 죽음을 미리 예언하기라도 하듯 죽은 이에게 바를 ‘몰약’을 새로 나신 왕 예수 아기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탄생과 함께 기려지는 죽음, 아니 희생으로 인한 죽음이라 그 탄생이 더욱 빛나보이리라. 그래서 더욱 이어지는 구절이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12절)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찾아,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갈망이 주님께서 펼쳐주시는 구원의 하느님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동방박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주 하느님께로 이끄시는 별, 성령께 힘입어 구원의 하느님 나라로 나아갑시다.



질문 : 제 남편은 술만 마시면 늘 자기 과거에 대해 한탄합니다. 지금 잘못 사는 것이 과거 자기 인생 때문이란 것이지요. 부모님이 자기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해서 부모가 돈이 없어서 등등 하구한 날 부모 탓만 하면서 삽니다. 사실 시부모님은 제가 보기에 납득이 좀 안 가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남편이 안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제가 싫은 소리를 할라치면 ‘네가 날 알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삽니다. 제 남편이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말이 없어서 답답할 정도인데 술이 문제인가요?

답변 : 홍성남 신부(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장)

남편분이 가진 문제는 피해자 증후군이란 것입니다. 술만 마시면 주사가 심한 분들 중에 부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을 늘어놓으면서 지금 내가 잘못 사는 것에 대해 변명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 양 행세하면서 삽니다. 자신의 과거가 불우하였으니 당연히 자기를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기 주정을 받아주어야 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 - 이들을 일컬어서 ‘피해자 증후군’에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두운 과거의 기억 한두 가지는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무리 큰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내 삶에 대한 책임은 바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과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지금의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서 지금의 내 인생을 만드는 데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안겨준 것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상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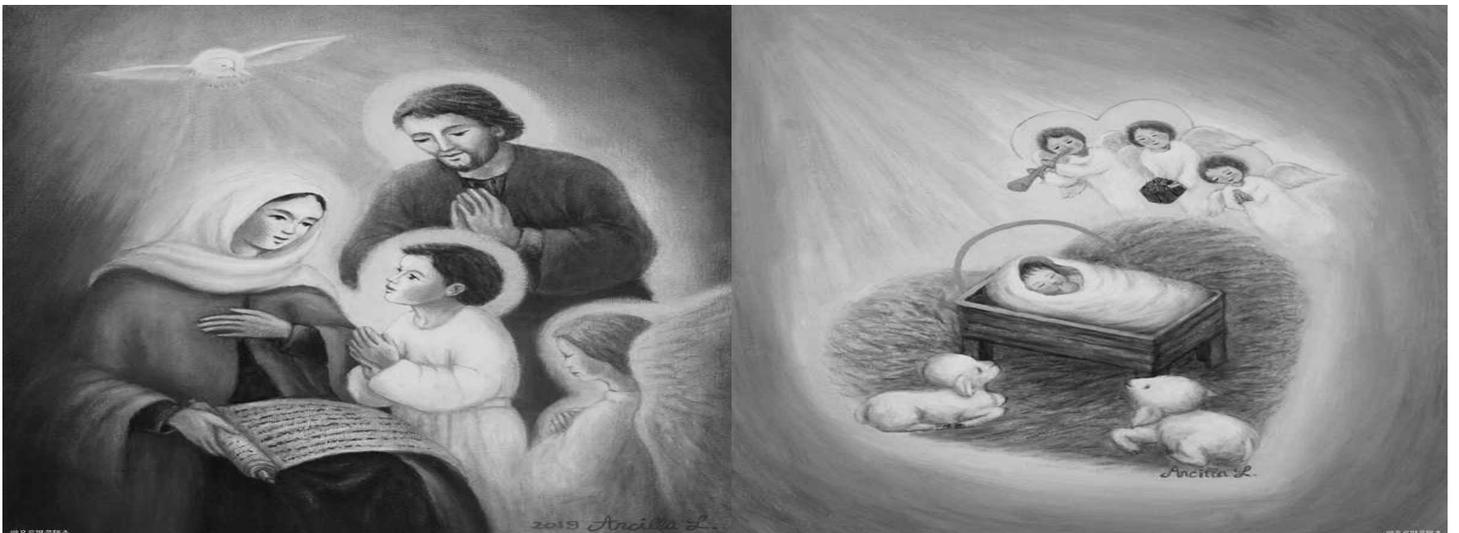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어린 시절 불우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진흙탕에서 피어난 연꽃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원망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각고의 노력을 더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 자기 안의 꽃을 피울 생각은 안 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한탄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인생 말기까지 진흙탕 같은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증후군에는 왜 걸리는 것인가? 사실은 자신의 무능함 무기력함을 감추기 위한 편법으로 스스로 환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패배자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과거에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인생길이 탄탄대로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운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른 면이 더 많이 보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꼭 금전적인 것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문제가 집안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의해 저질러지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조건이 좋으면 미래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반드시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경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흙탕인 과거가 거름이 되지만 과거에 대해 부끄러움과 수치심만 느끼는 사람들은 갈 길이 먼데 땅에 주저앉아 한탄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분들은 마태오 복음 8장에 나오는 나환자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육체적인 병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죄로 인하여 받은 천벌이라는 병적인 신념이 팽배하던 시절이라서 나환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환자는 자기 조상 자기 부모 자기 과거를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려는 의지를 가졌기에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전국에서 온 성탄 카드

지병인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던 한 고위 성직자가 죽음을 앞두고 몰래 비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필로 쓴 한 장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행복한 성탄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은 내게 각별하다는 느낌입니다. 이 땅에서 맞는 마지막 성탄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이 슬프기도 하지만 다가올 세상에서 주님과 더욱 친밀히 일치될 것을 생각하면 기쁘고 기대되기도 합니다. ... 내가 본향으로 마지막 여행을 시작할 때 여러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정과 친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그분은 비서에게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카드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6년 11월 14일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조셉 버나딘(미국 시카고 대교구장) 추기경님이었습니다. 성탄 카드는 그분이 선종한 후 수 시간이 지나 우체국으로 보내졌고, 세계 각처의 수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 성탄 카드를 받았습니다.

임종을 며칠 앞둔 11월 7일 미연방 대법원에 자살 방조 합법화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임종 전날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및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마지막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 그분이 마지막 성탄 카드를 자필로 써서 자신을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은 고인이 자신의 죽음을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버나딘 추기경님의 비서 겸 운전기사인 벨로 몬시놀에 따르면, 고인은 이미 9월에 자신의 장례식 준비를 마쳤을 정도였습니다. 버나딘 추기경은 당시 로마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기 안에서 벨로 몬시놀에게 장례식 계획표를 보여주었고, 몬시놀은 그 계획표에 자신이 강론자로 배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자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괜찮다네, 나 자신도 울었으니까.”

늘 열려있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분을 조문하기 위해 10만 여명의 인파가 몰렸고, 장례식 다음날 시카고 트리뷴지는 장례식 강론을 했던 벨로 몬시놀의 말을 인용, 1면 기사의 제목을 ‘추기경, 고향으로 돌아오다.’라고 달았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고인의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준 백미였습니다.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기념행사 준비

존경하고 사랑하는 본당 및 지방공동체 형제자매님들과 더불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벌써 50년이란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1년도에 우리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사 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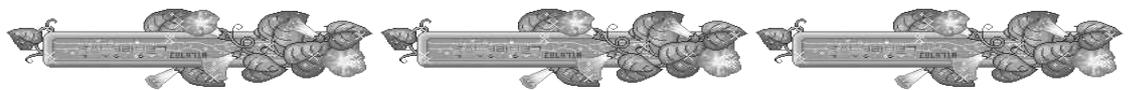
- 1) 기념미사(14시) : 2021년 6월 26일(토),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 2) 음악회(16시) :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 3) 기념식사(18시) :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강당
- 4)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



* 행사 준비 담당 *

- 1) 기념 미사 : 주임신부님, 회장님, 전례분과.
- 2) 사진전시회 : 최장용(레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동훈(노엘), 박성아(베로니카)
- 3) 음악회 : 김성윤(마르코), 김한솔나(리드비나)
- 4) 50주년 기념 책자 발행 : 김진호(프란치스코), 전우연(아네스), 허채열(크리스티안), 정명옥(살로메)

* 협조 사항 *



상기와 같이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형제자매님들께 도움을 청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로 함께하는 행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1)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50주년 기념이 될 수 있는 사진들.
- 2) 개인들의 시, 수필, 신앙체험 등 그 외에 좋은 추억의 글들.
- 3)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자유기도를 전 신자분들께 청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성당 기도모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준비 위원장 허길조(안드레아) Tel. 5553441

❖ 1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나탈리아	김성미	16일	노아	박노아
2일	비비안나	남궁현	16일	아델하이드	진윤희
3일	비앙카	허미란	25일	마누엘	김무진
4일	크리스티안	허채열 김호현	25일	엠마누엘라	허선애
6일	아셀라	김보경	25일	노엘	이동훈
8일	마리아	박순옥 이순자 이영희 홍미옥	26일	스테파노	이명원 정순문 김재원 박동윤 한승종
13일	루치아	배수현 김지희	29일	사비네	이금자
15일	크리스티아나	홍춘자			

❖ 1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일	비비안나	이진아(O)	25일	아나스타시아	김영숙(B)
2일	바울리나	강미향(H)	25일	노엘라	김유경(H)
13일	루치아	최예린(B) 문정자(B) 강은지(B)	26일	스테파노	문우영(H) 부종배(O) 유순식(H)
13일	오티리아	김선우(O)	26일	스테파니	이경숙(H)
23일	빅토리아	강연희(H)	28일	돔나	김효선(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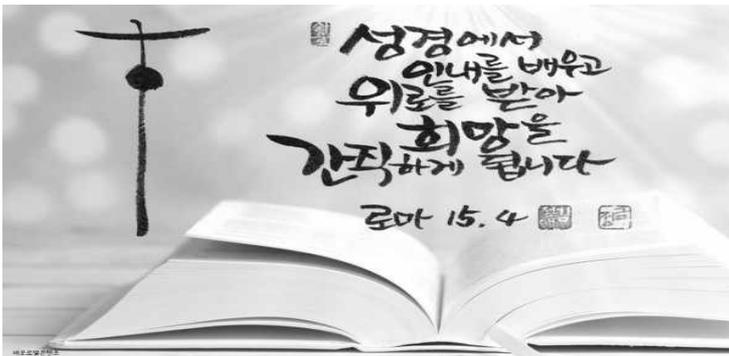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 12월 성가번호 ❖

12월	입 당	봉 헌	성 체	과 견
6일	481	512	178	93
13일	88	41	46	92
20일	89	210	188	96
25일	107	102	103	101
27일	114	219	171	113

❖ 11월 미사 전례 봉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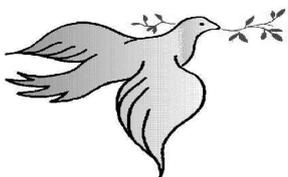
12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6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허길조(안드레아) 이명자(가밀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X
13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주일학교	X
20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4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X
25일	이정훈(요나스) 전우연(아네스)			X
27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권지연(안드레아) 김경미(이사벨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장용(레오)	X



❖ Hamburg 공동체 소식

1.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시기와 성탄시기가 12월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이지만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 12월 13일 일요일 주일미사는 St Olaf 성당에서 15시에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소는 Speckenreye 41 b, 22119 Hamburg입니다.
3. 성탄 대축일 미사를 안내합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 미사는 20시 만남성당 강당,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미사는 15시 예수 성심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ADVENIAT 2차 헌금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주십시오.
4. 12월 26일 토요일에는 성 스테파노 축일미사를 10시에 만남성당에서 봉헌합니다. 독일에서는 성탄 팔일 축제 내 축일 중에서 성대하게 봉헌하는 미사 중 하나입니다. 미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주임신부님에게 카카오톡으로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12월 30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던 송년미사와 음식 나눔은 올해 없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 2021년 1월 1일 금요일에는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15시에 만남성당 강당에서 봉헌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미사 후 떡국 나눔은 없겠습니다.
7. 12월에도 일체의 모임은 없으며 미사 후 커피 나눔도 없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미사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방공동체 신자분들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그리고 거리 두기를 잘 지켜서 건강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목 협의회	매일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일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일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 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매일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김형웅(야고보)		
		총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일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일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12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화	대림 제1주간 화요일		
2	수			
3	목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기념일		
4	금			
5	토			브레멘 공동체
6	일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7	월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대설		
8	화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9	수			
10	목			
11	금			
12	토			오스나브뤼크
13	일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성 올라프 성당	
14	월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 기념일		
15	화			
16	수			
17	목			
18	금			
19	토			하노버 공동체
20	일	대림 제4주일		
21	월	동지		
22	화			
23	수			
24	목		20:00 성탄 밤 미사	강당
25	금	주님 성탄 대축일	15:00 예수 성심 성당	
26	토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10시 만남 성당	
27	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 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28	월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29	화			
30	수			
31	목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보 만남 ❖

편집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4시 30분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